

정치학에 있어 젠더와 다양성 이슈

2017 년 세계정치학회(IPSA) 젠더와 다양성 모니터링 리포트는 2011 년과 2013 년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젠더'에 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다양성'의 여러 관점을 추가했다. 리포트는 IPSA 소속 국가별 정치학회(PSA) 서베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2017 PSA 서베이 결과



IPSA 소속 55 개 PSA 중 33 개가 답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 PSA 회원의 약 1/3 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 PSA 회장 중 39%는 여성이었다.
- 추가적으로 상임이사 39%, 총무이사/사무총장 37%가 여성이었다.
- 대략 PSA 의 42%가 원주민 회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나, 호주와 미국 PSA 만이 원주민 회원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 극히 소수의 PSA 만이 인종/민족, 언어와 원주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종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제도적 노력과 모범 사례

2017 년도 서베이에에서 다양성 관련 제도를 구축한 PSA 숫자는 19 개로 늘어났다. 이는 학회와 연구모임의 성별, 인종, 민족 관련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구를 포함한다. 더 드물게, 원주민 문제를 다루는 기구가 설립된 경우도 있었다. 모범 사례의 예로,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남성과 여성의 교차적 리더십, 다양성 연구를 진작하기 위해 학문적 수월성에 기초한 한 상(award)과 타이틀 제정 등의 방식이 있다. 어떤 다양성 이니셔티브가 효과가 있었는지 PSA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2017 IPSA 모니터링 리포트의 중요한 목표다.

IPSA 데이터 조사 결과

사무국으로부터 받은 IPSA 데이터는 지난 20 년간 꾸준히 향상되어온, 여성 참여의 여러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준다. IPSA 위원회(council)와 집행위원회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은 40%를 넘어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IPSA 회원 중 약 40%가 여성이고, IPSA 세계대회 참가자의 40% 이상이 여성이다. 젠더 문제 관련 연구위원회는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IPSA 연구위원회 의장직의 1/3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는 등 여성의 IPSA 연구위원회 참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IPSA 상(award)의 여성 수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 년간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IPSR)의 편집인 중 다섯 명이 여성이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3 년 동안 연속으로 IPSR 저자의 여성비율이 40%대에 이르렀다.

결론

2017 년 서베이와 국가별 PSA 와 IPSA 데이터 분석 결과, 정치학 학회의 여성 대표성이 진전되고, 학계의 주목받는 연구자와 리더 또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이 성과가 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양성 평등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논의와 시행이 여성 포용의 큰 흐름에 분명히 기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PSA would like to thank Eui Young Kim for providing the translation.